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17종→19종'

각종 재난·사고·범죄 피해 보험금 지급 제도

감염병 사망·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추가

함평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

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17종에서 19종으로 보장범위가 넓어졌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며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탈퇴 처리된다.

주요보장내용은 올해 추가된 2개 항목을 포함해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행소나·무보험차 상해사망 △행소나·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후유장애 등 총 19개 항목이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안전건설과(☎061-320-199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함평군에서는 익사, 농기계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6명의 주민(가구)이 총 7천6백만 원 가량의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함평=김평춘 기자



영암군, 목욕장업 전제 자발적 임시휴업 연장

영암군은 목욕협회 영암군지부와 미용협회 영암군지부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목욕장업 전체 14개업소와 영암읍 소재 미용업 18개업소의 영업을 군과 협의의 후 자발적으로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내 목욕장업 14개 업소 중 9곳은 임시휴업을 연장한다. 영업이 재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목욕장업과 미용업은,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에 따라 군민들의 안전과 집단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영업주들이 마음을 모아 임시휴업 결정"을 내렸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휴업 결정을 내려주시는 지부와 목욕장·미용업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정비 실시

무안군,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정비 실시

무안군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쓰러질 위험이 있는 생활권 주변의 수목을 제거하는 '재해대비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주택이나 각종 건축물, 농경지 주변에 위치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고령화, 인력, 장비 부족 등의 문제로 직접 제거가 어려운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하

여 제거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임대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도시녹지정비단을 통해 주민 불안감 해소는 물론 피해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25일부터 한 달간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실시 후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여름 장마철 전까지 정비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외대상은 ▲아파트, 상가 등 관

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사유지 내 단순불편 민원수목 ▲전신주나 전선, 케이블선 인접으로 처리해야할 주체가 명확한 경우 ▲단순 경관 개선 목적의 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술·현장 여건상 작업이 불가한 경우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 설 명절 향우민 고향방문 자제 호소

"아쉬워도 고향에 계신 가족의 건강이 우선 되어야"



신안군은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감염을 우려해 향우민에게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5일 온라인 문자와 군 홈페이지 영상을 통하여 군민과 향우민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아쉽더라도 고향에 계신 부

모님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향우민과 군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코로나 방역에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설 연휴 기간을 특별 위문 기간으로 정하여 14개 읍면 마을 어르신지킴이 봉사단(고독사 지킴이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웃 어르신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복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보건소에서는 연휴 기간 코로나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팀을 상시 운영하여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귀성, 역귀성객 전수조사 및 확진사고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안=이덕주 기자

목포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단 구성

부시장 단장으로 2개반 운영...목포실내체육관 등서 접종 예정

목포시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진단을 운영한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추진반, 실무추진반 등 2개반(6팀 95명)과 목포시의사회·대한간호협회전남간호사회·목포소방서·목포경찰서·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등 지역협의체로 구성된 '목포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행정추진반(반장 안전총괄과장)은 행정지원팀(팀장 자치행정과장)과 홍보팀(팀장 공보과장)으로, 실무추진반(반장 보건소장)은 시행 총괄팀(건강증진과장), 접종기관 운영팀(팀장 모자보건팀장), 백신수급팀(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이상반응관리팀(하당보건소장)으로 각각 구성됐다.

추진단은 대상자 관리, 백신수급 관리, 접종홍보 및 이상반응 신속대응

등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전반을 담당한다.

시는 백신접종센터인 목포실내체육관과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백신 수급에 따라 고령자,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사회필수서비스 인력 등 우선 접종 권장대상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말 실제 접종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는 등 전반의 준비를 마친 후 정부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2월 중(예정)부터 종료시까지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방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하겠다. 시민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앞으로 결정될 사항은 신속하게 알려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광군 "청정임산물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영광군은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산림소득분야 재정지원 사업보조금 신청을 2월 24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단기소득 청정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하여 임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내용은 △친환경 비료, △비닐하우스, △임산물 포장재 지원, △임산물 생산장비,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유통기자재 등이며, 지원 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